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수신자 직영·수탁시설장

(경 유)

제 목 2013년도 직영·수탁시설장, 부장(사무국장) 연수 일정 변경 안내 건

문서번호 서가사13 - 351(2013. 10. 28.)호로 알려드렸던 2013년도 시설장, 부장(사무국장) 연수 일정이 법인 사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연수주제 : ‘당신 말씀은 제 밭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 105>
2. 일 시 : 2013. 11. 15. (금) 10:00 - 11. 16. (토) 13:00 (1박2일)
3. 장 소 : 서울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소재)
4. 대 상 :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및 대규모시설 부장(사무국장), 법인 직원
5. 세부내용 : 2014년 사목교서 안내 및 모듬토의 (붙임 1. 계획서 참조)
6. 토의주제

연번	주제
1	2014년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에 따른 사업 논의
2	지난 3년의 5대 해결과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3년에 대한 해결과제 탐색

7. 요청사항 : 모듬토의 관련 자료를 사전에 보내드리오니 미리 의견을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현황 수정된 부분을 다시 공유해드리오니, 미신청 및 미입금 시설에서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3년도 직영·수탁시설장, 부장 연수 계획서(수정본) 1부.

2. 모듬토의 관련 안내자료 1부.

3. 시설장 및 부장(사무국장)연수 참석자 명단 1부. 끝.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장



담 당 김태환

부회장 오대일

회 장 정성환

협조자

시 행 서가사 13 - 362 (2013. 11. 08.) 접수

우 100-809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62번지 가톨릭회관 4층 / <http://www.caritasseoul.or.kr/bokji>

전화 (02) 727-2244 / 전송 (02) 2263-0853 / 이메일 kimgabriel@naver.com / 공개

[붙임1]

2013년도 직영·수탁시설장, 부장(사무국장) 연수 계획서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 필요성

- 직영·수탁시설의 시설장, 부장, 법인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차기년도 교구의 사목교서와 사목지침, 법인의 사목방향을 함께 공유하여, 교구와 법인, 직영·수탁시설이 공통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법인과 시설 간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구조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목적

2014년도 교구의 사목교서와 법인 사목목표에 대한 공유 및 공통 해결과제 모색을 통해 교구와 법인, 시설의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함양하고, 시설장과 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013년은 교구의 장기정책 주제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의 1단계 3년차로 지난 3년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이 평가를 통해 향후 3년의 방향과 실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요 및 안내사항

가. 기 간 : 2013년 11월 15일(금) 10:00 - 16일(토) 13:00

나. 장 소 : 서울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234, ☎ 02.2667-0535)

다. 대 상 : 직영·수탁시설장 및 대규모시설 부장(사무국장), 법인 전직원 :: **의무참석교육**

라. 담 당 자 : 교육·홍보팀 김태환(☎ 02.727-2244)

마. 준 비 물 : 개인용품, 세면도구, 필기구, 명함

바. 이동방법 : 서울지역에 위치한 연수원이므로 별도로 운영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연수원내 주차시설이 있기는 하나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은 아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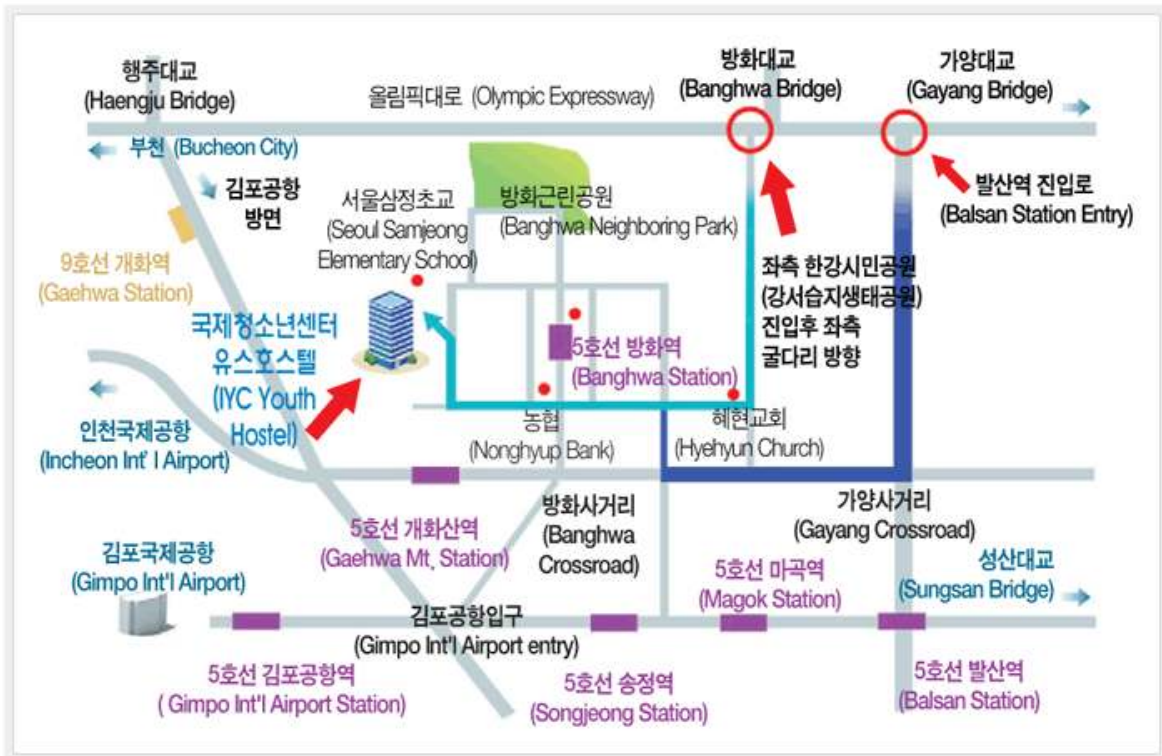
사. 협조사항 : 현재까지 연수 신청 현황과 입금현황이 표시된 엑셀 문서를 공유하오니, 확인하시고 **신청이 누락되었거나, 추가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곳에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직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연수비를 입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액 : 1인 70,000원 / 계좌 : 우리은행 1005-902-00308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제공된 PDF문서는 수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는 연락을 통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된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반영하여 놓을 예정)

○ 시설장·부장(사무국장)연수 세부일정(수정일정)

일자	시간	내 용	담 당
11월 15일(금)	09:50	참가자 접수 마감	
	10:00 - 10:40	시작 미사	Rev. 정성환 외 사제단
	10:40 - 11:00	쉬는 시간	
	11:00 - 12:30	2014년도 교구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 해설	Rev. 정성환
	12:30 - 14:00	점심식사	
	14:00 - 14:50	지난 3년간의 5대 해결과제 진행사항 보고	신혜선 담당관
	14:50 - 15:00	쉬는 시간	
	15:00 - 16:00	법인 안내사항	각 팀별 진행
	16:00 - 18:40	모듬 토의	모듬별 진행
	18:40 - 19:00	식사장소 이동	
	19:00 -	저녁식사 및 아가페	
11월 16일(토)	07:30 - 08:30	아침식사	
	08:30 - 09:00	각 방별 짐정리 및 휴식	김태환
	09:00 - 10:30	모듬별 토의내용 발표	이민정 담당관
	10:30 - 11:00	총평	Rev. 정성환
	11:00 - 12:00	파견미사	Rev. 정성환 외 사제단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해산	

※ 위의 일정은 법인 및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청소년 센터 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

5호선 방화역 4번출구 ▶ 100m 직진 ▶ 도로가 나오면 좌회전 ▶ 150m 직진 ▶ 3거리에서 좌측길

▶ 버스이용

G6629, G6641, G6646, G6712, B651, B642, B672

방화역 하차 삼정초등학교 좌측에 위치(방화역에서 도보 5분)

▶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157-856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234(방화3동 801) 국제청소년센터

연 락 처 : 02-2667-0535 / 팩스 02-2667-0744

홈페이지 : <http://www.iyc.or.kr>

▶ 주차안내

가능대수 : 총 73대 주차 가능

운영시간 : 새벽 05시 30분 - 저녁 10시까지 (10시 이후 문을 닫습니다)

[붙임 2]

2013년도 시설장 및 부장(사무국장)연수 모듬토의 내용

1. 2014년도 서울대학교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에 따른 사업 논의

1) 2013년도 서울대학교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을 시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봅시다.

--

2) 2014년도 사목교서와 지침이 반영된 법인과 시설의 공동 사업 논의(모듬별로 1~2개로 의견을 모아주세요.)

법인과 시설에서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으로 논의 바랍니다. 연수를 통해 논의된 사업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2014년도에 실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명 / 주제		
사업내용		
역할	법인	
	시설	
기대효과		

2. 지난 3년간 5대 해결과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3년에 대한 해결과제 탐색(아래의 사업내용 참조)

2011년부터 교구의 장기정책 주제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에 따라 법인과 시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출된 5대 해결과제에 대해 지난 3년간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평가를 해보고, 향후 3년간 (2014년~2016년) "법인과 시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과제		정체성 공유, 확립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직원들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 • 정체성 확립과 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담당자의 시설방문 • 공동행사를 통한 공동체성 정체성 확립 • 미션·비전의 공유 : 미션·비전 교육, 가톨릭사회복지 관련 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1	지난 3년간의 평가 (2011-2013)	계승·발전시켜야 할 부분	
		쇄신해야 할 부분	
	종합평가 (해결정도)	해결정도 : ☆ ☆ ☆ ☆ ☆ ☆ ☆ ☆ ☆ ☆	

2	해결과제	영성 프로그램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모두의 영적인 성숙과 마음의 훈련, 양성의 차원에서 접근 • 기존의 프로그램의 활용과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제시 : 영성 관련 책, 매뉴얼 제작 보급 • 광야체험, SCLP 프로그램, CPE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영성프로그램 개발
	지난 3년간의 평가 (2011-2013)	계승발전시켜야 할 부분	
	쇄신해야 할 부분		
종합평가 (해결정도)	해결정도 : ☆ ☆ ☆ ☆ ☆ ☆ ☆ ☆ ☆ ☆ ☆		

3	해결과제		시설장 모임, 협의체의 역할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의 구성 목적에 대한 확인과 합의 과정 필요 • 우리의 주요 가치인 자율성과 보조성, 연대성이 협의체 안에서 구현함. • 가톨릭의 고유한 교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를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합의 과정 진행. • 협의회와 법인의 담당자 간의 역할의 명확화 • 업무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명확한 이슈와 아젠다를 통한 회의 진행.
	지난 3년간의 평가 (2011-2013)	계승·발전시켜야 할 부분	
쇄신해야 할 부분			
종합평가 (해결정도)	해결정도 : ☆ ☆ ☆ ☆ ☆ ☆ ☆ ☆ ☆ ☆		

4	해결과제 직원들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의사소통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함. • 법인과 직영·수탁시설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의 활성화 • 직급별 워크숍, 체육대회 또는 등반대회 등을 통한 의사소통의 장 마련. • 원활한 기관 안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리더십 관련 교육, 지원 • 법인과 직영·수탁시설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 부장단 모임의 정례화,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면담.
	계승·발전시켜야 할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		
종합평가 (해결정도)	해결정도 : ☆ ☆ ☆ ☆ ☆ ☆ ☆ ☆ ☆ ☆ ☆	

5	해결과제		법인 특색이 반영된 공동사업 개발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톨릭사회복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묶어내고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끼 100원 나누기 운동의 확대 실시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실시와 확대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공동사업화 		
	지난 3년간의 평가 (2011-2013)	계승·발전시켜야 할 부분			
		쇄신해야 할 부분			
종합평가 (해결정도)	해결정도 : ☆ ☆ ☆ ☆ ☆ ☆ ☆ ☆ ☆ ☆				

지난 1단계(2011년~2013년), 3년 동안의 5대 해결과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2단계(2014년~2016년),
 향후 3년 동안 법인과 시설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듬별로 5개 이하로 도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출된 과제를 시급 순위별로 정리바랍니다.

1순위

해결과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이유	

2순위

해결과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이유	

3순위

해결과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이유	

4순위

해결과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이유	

5순위

해결과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이유

2014년 사목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하느님의 말씀은 새로운 복음화의 원동력 -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가 2012년 10월 11일에 시작되어 올해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끝났습니다. 전임 교황님께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과 새로운 열정을 더욱 북돋우기 위하여 신앙의 여정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¹⁾는 취지에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신앙을 위협하는 흐름과 요인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신앙의 해’ 선포는 성령의 인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앙의 해’를 시작하면서 발표한 사목교서에서 한국천주교회가 당면한 신앙의 위기는 ‘허약한 신앙’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허약한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섯 가지 표어에 담아 제시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그것입니다.²⁾ 이 지침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교구의 사제, 수도자, 신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야든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해’를 지내면서 쌓아온 신앙의 기초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 그동안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구가 ‘신앙의 해’를 위해 마련했던 다섯 가지 표어를 한 해에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기도, 교회의 가르침, 미사와 성사, 사랑의 실천은 신앙의 성장과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 다섯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허약한 신앙체질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4년에는 첫 번째 주제인 성경 말씀에 역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사도 바오로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1) 교황 베네딕토 16세, 자의교서「믿음의 문」, 2011, 2항.

2)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앙의 해 안내서」, 2011, 17-19쪽 참조.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되고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7)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경 말씀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면서 탁월한 영적 양식으로 여겨왔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성경이라는 산 위에 모여 드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있고 독성이나 해로운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옥한 목장입니다.”³⁾

이처럼 성경 말씀이 중요한 영적 양식인데도, 성경을 매일 읽는 신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심지어는 매 주일 미사 참례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분들이 약 30%, 3명 중의 한 명이나 됩니다.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없고, 따라서 신앙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 자녀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면서 필요한 힘과 지혜, 용기를 주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생활화합시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루카 8,15)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주일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그 날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미리 읽고 마음에 새기는 준비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말씀 전례 중에 봉독되는 성경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의 신앙을 기르고 굳세게 만들 것입니다.

신부님들께서는 신자들이 성경 말씀에 맞들임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 직무가 미사성제를 “목표로 하고 여기서 완성된다.”⁵⁾고 선언하는 동시에 복음 선포가 사제의 첫째 직무를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모이며, 이 말씀을 사제들의 입에서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⁶⁾ 따라서 사제는 신자들이 성경과 성찬의 두 식탁에 자주 참여하여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사제의 첫째 직무인 말씀 봉사는 “사목적 복음 선포, 교리교육과 모든 그리스도교 교육”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전례적 설교, 곧 미사 강론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⁷⁾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따르면, “강론은 성경 메시지를 현재화함으로써 신자들이 현재의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 말씀의 현존과 그 활동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⁸⁾ 물론 이런 강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⁹⁾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사제의 강론에

3)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목자들에 대한 강론」에서.

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서울대교구 본당사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설문조사 보고서」, 2012, 63-64쪽 참조.

5) 「사제 생활 교령」, 2항.

6) 「사제 생활 교령」, 4항.

7) 「계시 현장」, 24항.

8)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권고「주님의 말씀」, 2011, 59항. 교황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하느님 말씀의 단순함을 가리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강론이나, 복음 메시지의 핵심보다 설교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쓸데없는 빛나감을 피해야 합니다.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강론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신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성경 본문과 친밀해야 하고 꾸준히 그 본문을 접해야 합니다.”

서 영적으로 많은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더욱 노력하기로 합시다.

성경 말씀이 참된 영적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¹⁰⁾에 비추어서 읽혀지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난 성경 해석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신흥종교단체가 자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많은 신자들을 현혹시켜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공인한 성경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신부님들, 특히 사목 현장에 계신 신부님들께서는 신자들이 “낮선 사람들의 목소리”(요한 10,5)가 아니라 참된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명하십니다(루카 9,45 참조). 그분은 당신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고 하십니다(루카 10,42 참조).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간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본질적 자세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성모님이십니다.¹¹⁾ 그분은 가브리엘 천사의 전갈이 무슨 뜻인지를 “곰곰이 생각”(루카 1,29)하셨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놀라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습니다.’(루카 2,19.51 참조) 또한 성모님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2014년 한 해 동안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삶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 갈 때 우리사회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오늘날 올바른 가치관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신숭배, 경제적 양극화, 생명경시, 거짓, 폭력 등과 같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기준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 우리 길에 “빛”(시편 119,105)이 된다면, 이런 혼란과는 정반대의 모습, 곧 나눔, 정의, 생명, 정직,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제, 수도자, 신자 여러분 모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모시키시어 미래로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희망의 날개를 달고 그 길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¹²⁾ 세상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하면서 기쁘게 사는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그분 말씀 안에서 기쁨과 희망의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와 세상이 새롭게 복음화될 것입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주보이시며 우리 믿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9) 「사제 생활 교령」, 4항.

10) 「계시 현장」, 12항.

11)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권고「주님의 말씀」, 2011, 27항 참조.

12) 교황 프란치스코, 「신앙의 빛」, 2013, 7항.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목숨 바쳐 신앙을 증거하신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13년 12월 1일 대림 첫 주일에

유영수경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

2014년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한 아래의 교구 지침을 본당과 지구, 수도회 및 각 교회기관의 실정에 맞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1. 미사 전 일정 시간(15분 정도) 그날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도록 합시다.
2. 미사 때 들었던 말씀(독서, 화답송, 복음) 중에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구절을 적고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3. 거룩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개인, 가정 단위 혹은 구역별로 필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4. 성경에 대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단, 교구 공인 성경프로그램인지 꼭 확인해주시시오.
(공인프로그램 : 성서못자리, 가톨릭성서모임, 성바오로교육관 바오로성서모임, 성서백주간,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여성성서모임, 가톨릭청년성서모임, 베네딕도 성서학교)
5. 성경을 1년 동안 통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일반교육>

“성경을 읽고, 읽은 것을 믿고, 믿은 것을 가르치십시오.”

1. 읽고 : 소공동체 수첩에 실린 ‘성경 읽기표’에 따라 구역 성경 전체를 읽습니다.
2. 믿고 : 매주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선택하여 새기도록 합니다.
3. 가르치기 : 새긴 말씀을 다른 이에게 말하고, 삶 안에서 실천합니다.

<교리전례사목>

1. ‘함께하는 여정’을 통한 예비신자 교리가 하느님 계시의 내용을 온전히 예비신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비신자 교리 봉사자들이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실한 준비를 하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중심으로 교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3.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당 차원에서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신심생활과 기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또한 전례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사목>

1. 오늘의 말씀 혹은 그 주일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자기 가정을 위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찾아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2. 말씀의 핵심이 사랑의 실천인 만큼, 각 가정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사랑의 실천과 관련된 말씀을 가훈으로 삼아 매일 묵상하고 성찰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3. 가급적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양심성찰과 의식성찰을 한 후 통회한 내용과 의지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부분을 담은 영적일기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4. 자신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나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은총을 필요로 하는지 찾아내고, 매 미사 때와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께 정성껏 그 은총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5. 온 가족이 말씀을 중심으로 일치하여 성가정을 이루려면 각자의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희생과 헌신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노인사목>

1. 가톨릭 시니어 아카데미의 신앙과 영성생활의 실질적인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월 교재(“주님과 함께”)를 발간하여, 성경, 교리, 영성의 3분야별 교안과 교사용 자료를 제작할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경73」, 「이사이 그루터기」 성경공부 교재도 함께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니어 아카데미의 신앙성숙을 위한 ‘외딴 곳’ 피정 프로그램(용문청소년수련장, 1박2일)과 선교사들이 이끄는 1일 방문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강상 이유로 본당 교리반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방문 교리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방문 교리 봉사자 교육’을 준비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방문교리를 할 수 있는 봉사자를 선발하여 교육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질적인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영 시니어(55세~67세) 아카데미」(2년 과정)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유능한 인재를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6. 글을 모르는 노인신자들을 위해, 「시메온 학교」(문해교육)를 지구 단위로 확산 보급하고 이를 위한 봉사자를 양성하는데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7. 노인사목의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봉사자들을 위한 월례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강사뱅크’를 운영하여 각 본당의 노인사목에 실질적인 도움을 도모하려 하오니, 이를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노인사목 연구위원회」(전문교수모임)를 중심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자살문제 등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 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9.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개 「가톨릭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통하여, 지역 사회 안의 노인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와 선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려 하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성서사목>

1. 성경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신자들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2. 본당이나 지구차원에서 성서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서교육이 본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각 사도직 단체들 간에 마찰이나 갈등 없이 협력하여 교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본당에는 성서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공부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 복음 선포와 실천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사목>

1. 평신도 (사립)단체는 성경을 자주 읽고 쓰고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임의 기도(시작기도 혹은 마침기도)를 그날 복음 봉독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2. 단체의 친교와 고유 카리스마를 지켜감과 동시에 교구, 본당, 타 단체와의 교류와 친교를 통해 보다 넓은 안목으로 사회 복음화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직 인준 받지 못한 단체는 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교구장님의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사목부를 통해 인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인준 받은 단체는 평협에 가입하여 교구 내 단체간의 긴밀한 유대를 맺고 서로 협력하여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사목>

2013년 '신앙의 해'의 다섯 가지 표어를 한 해씩 실천하는 첫해인 2014년, 교구 청소년·청년사목의 분야에서는 각 지역, 지구, 본당에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에 따라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혼인성사의 은총과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세례로 받은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그리스도인의 교육선언 3항)에 따라 각 지역, 지구, 본당의 사목자들께서는 청소년기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교육자인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의무를 새삼 깨달을 수 있도록 강조하고 성경 말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지역, 지구, 본당은 청소년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교육과 신앙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읽기, 성경 쓰기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주님의 말씀에 맞들이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3. 본당을 비롯한 교회의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4. 다양한 환경과 계층의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청소년사목 협조자와 봉사자들의 양성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힘써주십시오.

<사회사목>

성경으로 세상보기

‘하느님의 말씀은 새로운 복음화의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관찰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회 안에서 구현해 나아갑시다.’

“오늘날 인류는 현대 세계의 변화, 우주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개인의 노력과 집단 노력의 의미, 마침내 사물과 인간의 궁극목적과 관련하여 고뇌에 찬 문제들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하느님 백성 전체의 신앙을 증언하고 제시하는 공의회는 인류의 고뇌에 찬 문제에 대해 인류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문제들을 복음에서 이끌어 낸 빛으로 비추어 주고, 교회가 받은 구원의 힘을 인류에게 풍부히 제공함으로써, 온 인류 가족에 대한 연대와 존경과 사랑을 가장 웅변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사목헌장 3항)

따라서 교구민의 직면하고 있는 고뇌에 찬 문제(가정, 경제, 정치, 문화, 복지, 생명, 환경, 평화 등)를 성경의 빛으로 비추어 시대적 징표를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삶으로 실천할 기회로서 성경 읽기를 적극 권장해 주십시오.

<선교문화봉사국>

1. ‘하느님의 말씀은 새로운 복음화의 원동력’이라는 주제에 따라 서울주보에 신·구약 성경을 풀이하는 ‘성경산책’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첫 회칙 ‘신앙의 빛’을 매주 그림과 함께 한 문항씩 목상하게 되니 관심을 갖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교회 복음화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선교지역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해외선교사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해외선교를 위한 후원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구 소식을 전하는 교계 언론(평화방송·평화신문, 가톨릭신문 등)을 구독하면서 교회 소식을 알고자 노력합시다. 또한 일반 언론에 나오는 교회 소식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위원회>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의 첫해를 맞이하여 생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목교서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1.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수호하기 위해 ‘생명분과’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본당에서는 반드시 생명분과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이미 생명분과를 설치하신 본당에서는 생명분과 위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2014년도 본당 사목방침에 반영해 주십시오. 또한 생명분과를 통해 본당 사목의 각 분야에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수호에 대한 소명을 반영하여 주십시오.
2. 각 본당에서는 교구에서 시행하는 생명관련 교육(성경 말씀에 따른)과 행사에 본당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당생명분과 위원들의 양성을 위해 교구에서 마련한 생명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문헌(생명의 복음, 인간생명 등)에 나타난 성경말씀 읽기와 생명문헌 연구
- 본당생명분과 위원 연수(연 2회 이상) 및 생명 세미나 참석 등
- 자연출산조절(NFP) 교육, 본당생명교사 양성교육, 생명지킴이 행사 등

3. 각 본당에서는 교우들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관상적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당차원의 생명교육과 전례 및 행사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본당 생명교사'를 활용한 예비자 교리 및 작은 규모의 단체를 위한 생명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내 생명교육 : 사순 및 대림 특강, 견진성사를 위한 교육, 생명특강과 강론 등
- 전례 및 행사 : 생명을 위한 기도 봉헌, 임신부 축복식(미사), 마리아-요셉프로그램 등
- 본당생명교사를 활용한 생명교육 : 예비자교리, 레지오마리아에 훈화, 자모회, 교사회, 노인대학 특강, 본당 청년생명 교육 등

4. 각 본당에서는 교우들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혼부부와 임신부 등 출산을 준비 중인 신자들이 생명운동의 일환인 제대혈(탯줄혈액) 기증운동의 동참과 노인교우들과 임종에 가까운 교우들이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교우들이 적극적인 영적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간호와 호스피스 돌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해결과제 개요 및 법인 사업반영 내용

○ 개요

- 시설장 워크숍에서 제기된 본회와 직영수탁시설이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한 주요 과제의 해결 방안 모색
- 총 17차에 걸친 회의 진행, 해결방안 도출
- 법인과 시설이 함께 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과 논의 진행, 의견수렴
- 201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진행 개요

1. 2011. 2. 직영수탁시설 워크숍에서 34개의 해결 과제 제기

- 대규모시설 시설장(성직자, 수도자) : 법인 지도 점검의 성격, 시설의 종교 활동에 대한 대책, 역할, 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 자문단 구성, 전문 행정팀 구성
- 대규모시설장(평신도) : 법인의 특색이 반영된 공동 사업 개발(사업의 브랜드화), 법인 종사자들의 가치 공유, 본당과의 협력 관계 구축, 법인과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인적 자원 교류, 시설장 모임 조직
- 대규모시설 부장급 : 직원교육의 다양화 체계화, 시설의 운영 지원체계 마련기관 간의 인적 자원 교류 활성화, 시설의 종교 활동에 대한 대책, 역할, 법인 비전의 구체화, 직원들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 자문단 구성, 공동의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원장 : 내적 쇄신과 정체성 확립 기회 제공, 지역사회와의 소통, 정보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공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브랜드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나눔 교육의 확대를 위한 노력
- 중소규모시설장 : 법인의 울타리 역할 강화, 법인과 시설이 함께 하는 영성 프로그램 필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업무 점검 개선 필요, 법인 직원의 토론 참여 요청, 지역사회 안에서 본당과 시설의 관계, 시설 확충보다는 현재 시설의 내실화 필요, 시설장과 회장님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 필요, 행정처리, 서류 발급 시 신속한 처리 요청, 공통 운영 지침 필요,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확대 필요, 법인전입금 필요

2. 1단계 : 제기된 과제에 대한 소견, 느낌 나눔을 통한 해결의 가치 도출

- 제기된 과제에 대한 소견과 느낌 나눔
- 네 가지 해결의 가치 도출
내적 치유, 역할의 명확성, 의사소통 구조, 서로 이해

3. 2단계 : 과제들의 그룹화와 논의

■ 내적 치유, 역할의 명확성, 의사소통 구조, 서로 이해 네 가지 해결의 가치를 기반으로 각각의 과제들에 대한 의견 나눔

1. 법인의 업무 점검, 지도 점검 : 지도 점검을 통한 행정기관 감사 준비의 성격 강화, 업무점검의 간소화 요구
2. 가치 공유, 교육 관련 주제
 - 2-1. 정체성 공유, 확립 : 법인, 종사자들의 가치 공유, 내적 쇄신과 정체성 확립 기회 제공
 - 2-2. 영성 프로그램 : 법인과 시설이 함께 하는 영성 프로그램 필요
 - 2-3. 전문성 교육 : 직원교육의 다양화, 체계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3. 시설 운영 지원 관련 주제
 - 3-1. 전문 자문단 구성 : 노무, 법률, 회계, 전문 서비스 관련 자문단 구성, 지원
 - 3-2. 본당과의 협력체계 구축 : 본당과 시설의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닌 윈윈할 수 있는 관계 구축 필요
 - 3-3. 시설장 모임, 협의체의 역할 : 직영수탁시설 의사소통을 위한 모임 필요, 협의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점검 필요
 - 3-4. 직원들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 법인과 시설, 시설과 시설, 시설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 마련
 - 3-5. 시설간의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 법인과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인적 자원 교류
 - 3-6. 시설의 종교 활동에 대한 대책, 역할 : 법인의 종교활동, 상징성 제한에 대한 대책과 지원
 - 3-7. 법인 특색이 반영된 공동사업 개발 :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사업의 브랜드화
 - 3-8. 내실화, 법인전입금, 지원사업의 확대 :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 필요

4. 3단계 : 우선 순위 도출

1. 정체성 공유, 확립
2. 영성 프로그램
3. 시설장 모임, 협의체의 역할
4. 직원들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5. 법인 특색이 반영된 공동사업 개발

5. 4단계 : 구체적 해결방안 도출

■ 우선 해결해야하는 과제의 해결 방향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2012-13년 법인 사업반영 내용

1. 정체성 공유, 확립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직원들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 ■ 정체성 확립과 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담당자의 시설 방문 ■ 공동행사를 통한 공동체성, 정체성 확립 ■ 미션·비전의 공유 : 미션·비전 교육, 가톨릭사회복지 관련 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팀명	2012년도 사업내용	2013년도 사업내용
사회 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단체 시설방문 단위사업계획으로 진행 예정 : 협의회 담당자의 행사참석 및 시설방문 총 66개 기관방문 예정 ■ 분야별 1개 직영시설 운영위원으로 담당자 참여 예정 : 우리누리어린이집, 동선동 청소년공부방, 신망애의집, 화해의 집, 우리집공동체,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예정 ■ 직영보호작업장 공동사업 추진 : 직영보호작업장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을 통하여 연대성, 공동체성 향상 ■ 직영시설 정기업무점검 및 특별점검 추진예정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및 사업효과성 점검, 지원을 통해 교회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 ■ 지구네트워크회의체 구성 : 지구별 본당과 시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네트워크 회의체를 구성, 확대하여 가톨릭시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지역본당과의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시설 정기업무점검 및 특별점검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및 사업효과성 점검, 지원을 통해 교회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 ■ 등록단체 시설방문 : 법인과 시설 간의 이해 향상 ■ 직영·수탁시설 운영위원 역할과 참여 ■ 협의회 공동행사 : 각 협의회와의 친교공동체 형성 및 공동체성 향상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기회 마련
교육 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션·비전 공유 사업 실시 : 확정된 미션·비전을 전 구성원이 이해하고 내면화하기 위한 교육 실시 ■ 직영·수탁시설장 및 부장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 및 연수 : 사목교서 및 지침에 따른 사업방향 공유, 법인과의 연대성 향상을 위한 토론 진행 ■ 신입직원 교육의 강화 : 직영·수탁시설 신입직원 교육 4회차, 등록단체 신입직원 교육 1회차, 직영·수탁 어린이집 신입교사 교육 2회차 실시 ■ 신입직원 교육의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 (1일 교육 → 2일 교육으로 내용 면에서 시간 면에서 강화) ■ CI 규정의 정착을 위한 설명회 실시 : 명함, 공문서 양식 등 구체적 적용에 대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를 위한 가톨릭사회복지학교 종사자 과정(영성교육)을 계획하여 진행 ■ 신입직원교육, 신규직영·수탁시설교육 시 미션과 비전의 내용을 담은 교과과정 실시 ■ 신입직원교육의 강화 : 1일 → 2일 교육으로 시간과 내용 면에서의 강화 ■ CI 규정의 정착을 통한 정체성 공유 확산 : CI 공모전 ■ 미션·비전 교육 사업 실시 : 인권교육과 함께 진행 예정
자원 봉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기본교육 내용으로 핵심가치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미션·비전의 공유 ■ 직영·수탁 및 등록시설, 본당 및 봉사단체 자원봉사자 관리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카리타스 종사자로서의 자원봉사 관리 방법 및 역할) 실시

2. 영성 프로그램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 모두의 영적인 성숙과 마음의 훈련, 양성의 차원에서 접근 ■기존의 프로그램의 활용과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함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제시 : 영성 관련 책, 매뉴얼 제작 보급 ■광야체험, SLPS 프로그램, CPE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영성 프로그램 개발

팀명	2012년도 사업내용	2013년도 사업내용
사회 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회 종사자 연수 지원 : 전문교육 이외에 심과 영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어린이집, 청소년, 여성, 노숙인,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협회의 성지순례 지원 ■시설 개관기념 미사와 연말 성탄미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회 종사자 피정, 연수 지원 ■장애인복지협회의 성지순례 지원
교육 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영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 : 준비 작업을 거쳐 차기 년도 사업에 준비를 위한 사업 반영 ■주교회의 사회복지 종사자 피정 : 주교회의에서 진행되는 전국 사회복지종사자 피정 참여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와 본당신자를 위한 가톨릭사회복지학교 진행 ■주교회의사회복지 피정, 나눔의 묵상회 피정 등의 적극적인 홍보 참여 독려 ■자체 영성강화프로그램은 중장기 사업으로 기획
자원 봉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교육의 자원봉사 정신을 신학적 근거와 영성에 기반하여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 내 일일피정 프로그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자 1일 피정(혹은 성지순례)

3. 시설장 모임, 협의체의 역할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의 구성 목적에 대한 확인과 합의 과정 필요 ■ 우리의 주요 가치인 자율성과 보조성, 연대성이 협의체 안에서 구현함. ■ 가톨릭의 고유한 교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를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합의 과정 진행 ■ 협의회와 법인의 담당자 간의 역할의 명확화 ■ 업무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명확한 이슈와 아젠다를 통한 회의 진행

팀명	2012년도 사업내용	2013년도 사업내용
사회 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단체·협의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분야별협의회의 조직정비, 정보관리, 연대사업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예정 ■ 등록단체 지원사업으로 협의회 지원사업 증액 : 협의회 지원 예산 이외에 협의회 교육사업과 연대사업 지원 증가(3개 협의회 1,200만원) ■ 상담·의료복지협력체계 구성 추진 :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많은 분야의 이해, 소통, 협력을 위한 논의구조 구성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지원사업비 증액 : 협의회 지원 예산 이외에 협의회 교육, 연대사업 지원을 통한 협의회 역할지원 ■ 담당제 활성화 : 자율·책임에 근거한 법인과 협의회의 협력적인 역할 수행 ■ 협의회 공동운영지침 수립 : 협의회별 체계정비를 위한 정관 검토 및 운영방안 공유 ■ 분야별협의회 정책 및 방향제시를 위한 논의와 연구 ■ 상담·의료복지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 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내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적극적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통한 법인 차원의 참여 증대 노력 	-

4. 직원들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의사소통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함. ■ 법인과 직영수탁시설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의 활성화 ■ 직급별 워크숍, 체육대회 또는 등반대회 등을 통한 의사소통의 장 마련 ■ 원활한 기관 안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리더십 관련 교육, 지원 ■ 법인과 직영수탁시설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 부장단 모임의 정례화,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면담

팀명	2012년도 사업내용	2013년도 사업내용
사회 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책임자 정기회의 추진예정 : 정기업무점검, 노인통합사례관리 모형개발, 교회사회복지기관 운영평가지표 개발 시, 시설의 의견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로서 정기회의 예정 (법인과 시설과의 의사소통 향상)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특별히 기관내 종사자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으로 야기된 민원사항이 증가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정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책임자 정기회의 추진 : 정기업무점검, 노인통합사례관리 모형개발, 교회사회복지기관 운영평가지표 개발 시, 시설의 의견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로서 정기회의 예정 ■ 협의회 차원의 중간관리자, 실무자 연수 지원 및 참여
교육 홍보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별 교육에 맞춰 알맞은 리더십 교육 참가
자원 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단체 모금 실무자 네트워크 조직화: 전문 모금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과 전문가의 코멘트가 상호논의 되어야하고 이에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모금아이템 개발과 연대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단체 모금담당자네트워크 모임 -모금 담당자들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사업공유 및 아이템 개발, 새로운 모금전략 마련 -2012년 참여직원들의 평가에 따라 2013년에는 교육·홍보팀과 연계한 모금담당자 교육 신규개설
자원 봉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봉사수요조사 통한 산하시설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요원 보수교육을 통한 자원봉사 관리 실무자와의 소통 구조 강화

5. 법인 특색이 반영된 공동사업 개발

해결방향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톨릭사회복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묶어내고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끼 100원 나누기 운동의 확대 실시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실시와 확대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공동사업화

팀명	2012년도 사업내용	2013년도 사업내용
사회 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인권향상을 위한 자문단 구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를 비롯한 시설운영 전반에서 차별행위를 점검, 예방, 해결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 예정 ■생애주기별 장애인시설 설치 연구사업 추진 : 가톨릭장애인 복지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사업 추진 예정(장애인부모연합회 구성, 연구TFT 구성, 계획안 수립 등) ■노인통합사례관리 모형개발사업 추진 : 바보의나눔 지원금을 확보, 직영노인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카리타스 강점과 영성 기반한 노인통합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가톨릭보육시설 운영규정 및 평가지표 개발 추진 : 협의회와 보육자문위원회 협력으로 가톨릭보육시설로서의 특화된 운영평가지표 개발 추진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영보호작업장 공동사업 : 직영보호작업장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을 통하여 연대성, 공동체성 향상 ■대상자인권향상을 위한 자문단 구성 : 분야별 행사 및 시설 운영 전반에서 차별행위를 점검, 예방, 해결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 예정 ■생애주기별 장애인시설 설치 연구사업 추진 : 가톨릭장애인 복지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사업 추진 예정(장애인부모연합회 구성, 연구TFT 구성, 계획안 수립 등) ■CS노인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 추진 : 바보나눔으로부터 2차년도 지원사업을 통해 동작·성동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측면의 전인적 돌봄을 위한 CS 강점 및 영성기반 노인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 ■가톨릭보육자문위원회 운영 :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가톨릭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연구와 지원
교육 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교육 실시를 위한 준비 :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교육 실시 : 심포지엄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인권교육으로 실시(미션·비전 교육과 함께 진행 예정)
자원 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끼100원나누기 사업: 산하시설(단체) 및 본당사회사목의 자립적인 모금활동이 필요하며, 본 회에서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사회내에서 모금함을 식당이나 기타 업체에 배치하여 자원마련을 하도록 지원한다. ■연대모금 사업: 시설의 제세공과금인 자동차보험과 연계하여 보험회사에 등록하여 보험회사에서 법인으로 보험기부를 실시하며, 시설장 및 직원들의 자율적인 본회 정기후원 신청접수를 통해 법인에 기부를 하고, 모여진 모금액을 다시 법인에서 산하시설로 지원하여 연대성을 다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끼100원나누기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과 재원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회 모금함지원을 통한 자체 업체개발로 지역 내 나눔문화의 지속적 확산과 기관운영 재원 마련 - 참여본당 확대를 위하여 사회사목분과장 회의 등에 지속적 참여독려와 기존참여본당에 대한 현장방문 강화 ■연대모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차량보험 만료 시 본 회 연계 보험회사로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시설상해보험, 종합배상보험 등 신규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확대 - 해피빈 공동이슈모금 등을 신규로 기획하여 협의회별(대상별) 온라인 공동모금 기회 마련
자원 봉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당 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주일학교 교사 대상 자원봉사 기본교육 신설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 교육 자료 연구 ■기본교육 시 한 끼 100원 나누기 저금통 배부를 통한 공동체 의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눔운동 강화 및 실천에 대한 공동 프로그램 연구, 실시